



태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의례위원

“의례, 불자들 감흥 이끌어내야”



이도흠
한양대 교수

“한글화, 중학생도 이해 가능토록”



한상길
동국대 전임연구원

“전통 기반해 시대 맞는 의례 개발”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사리

“쉬운 일상 의례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의례, 불교 정신 전달의 보루... 쉽고, 시대 맞게 변화해야

불교평론 제53호 특집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

의례의 내용은 교리와 합치하는가

한국 불교의례를 논할 때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의례’란 용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것이 불교적 의례이며, 어디까지가 가장 불교적 의식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불교의례’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굴과 움직임이 모습 하나하나에 잘 본받아 담아내는 법’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중국의 불교 변용에 우리의 변용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종파불교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교 양종의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불교는 불복장, 신중신앙(천수경)무상계 등 우리만의 불교를 만들어내는 지력을 보였다.

교의 시작으로 선의 실천에 들어가는 구조인(석문의법)은 1930년대 서구 종교와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변혁기를 맞이한 불교계가 사용하기 용이한 의례를 보급하기 위해 발간했다.

《석문의법》은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문과 한글을 상하단으로 병기하며, 다양한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글로 최소화하였다. 또 내용은 교의 방편과 선의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석문의법》은 전통의 계승,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엮여 있다. 진언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비불교적 요소로 보이는 것조차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교의 전환이란 환영과 같은 방편을 방편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 결과 본래 부처님의 뜻을 마음에서 새겨 지송하는 의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의례가 불자들에게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의례가 불자들에게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석문의 의무이며, 의법에서 보이는 가치와 역할이 아닌가 한다.

〈조계종 포교원 의례위원 태경 스님〉

종교에서 의례는 종교적 감동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활용돼 왔다. 그렇기에 전통에 따르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례가 행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최근 수록재의 문화재 지정과 의례 한글화 등 불교의례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평론》(주한 홍사성)이 2013년 여름호 특집으로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를 기획 게재했다. 《불교평론》 특집에는 총 7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중 의례 대중화와 한글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 4편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불교의례 한글화 원칙과 지향점

불교의례는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1700년 전부터 행해졌다. 수계·일상의례·불공·천도의식 등 시대마다 의례는 조금씩 모습이 변모해왔다. 하지만 불교의례는 한국 대중의 삶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의례가 ‘완전히 한국화’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참여와 공감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깨달음과 회향에 이르는 불교의례의 목적과도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다. 쉬운 예로 스님들이 한문으로 된 의식문을 읽으면 대중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듣기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반야심경》이 2011년에 한글로 역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글로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선 사찰에서는 대개 스님 홀로 한문으로 된 의식문을 읽고 대중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를 끝내는 게 단반사다.

강요된 의례는 불교에 대한 대중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불교의례의 목적인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회향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불교의례는 대중화를 지향해야 한다. 의식문을 한글화하고 의례를 현대 대중의 삶과 어울릴 수 있게

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글화는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낱말로 바꿔야 하며, 원문에 충실하되 간결하게, 문체를 살리며 복원한다. 진언은 범어의 원음과 가깝게 표기하는 게 맞다. 3.4조나 4.4조로 바꾸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국인의 정서와 호흡에 맞는 율격은 대중의 공감을 물론 의례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글 불교의례는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한국불교의 중요한 자산이자 삶이다. 불교의례를 통해 대중들은 소망을 실현하고 사회적 치유를 경험한다. 그렇기에 경전과 의식문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껴 부처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의미 전달과 함께 수사, 율격과 같은 형식적 장치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근대불교 의례개혁과 불교대중화

근대사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개혁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울려 퍼졌다. 불교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왕조 수 백년 간 억압과 차별에 방치된 불교는 근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었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보〉 등은 근대적

계몽의 일환으로 중세적 관습 철폐를 주장하며 불교 천도재와 재공양, 각종 제사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불교계 내에서도 한용운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의례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불교의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었고 삶의 일부였다. 역설 시대에도 영산재와 수록재가 꾸준히 계속됐으며 연등회는 세 시종속으로 정착됐다.

일제강점기 압제 하에도 불교의례는 성행했고, 특히 법배는 전문 의식승들의 전수와 교육으로 계보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 근교 유명사찰은 일년 내내 각종 재공양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불교의례의 대표적 사례인 수록재는 불교 대중화와 사회화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다. 1903년 원흥사 1914년 봉은사에서 수만명이 운집한 수록재는 포교와 신앙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단순히 불교의례를 더나 망국 백성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불교의례는 종교의례를 넘어 민족문화와 정신향양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근대화를 위한 의례개혁에도 전통의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의례개혁은 전통의례가 가진 원형의 가치를 인정한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례를 창안하는



2002년 열린 목탁의식 집전 교육모습. 시대에 맞는 의식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상길 동국대 전임연구원〉

불교의례의 문제와 개선방향

불교의례 개혁 논의는 구한말 이래 계속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교의례 개혁이 원점에서 맴도는 이유는 실제로 전통적인 의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의례는 일반 신도들에게 매우 불편절하다. 여기서 불편절이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복잡한 절차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에 다닌 신도들에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유교적 전통에도 익숙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례는 더욱 낯설다. 그들은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통해 자기변화의 체험을 원한다. 복잡하고 권위적인 사찰의 예법이나 형식적인 의례는 거부한다.

따라서 전통의례는 비합리성과 소통 불능, 의미를 알 수 없는 상징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전통 의례의 문제점이다.

불교의례는 자기 성장과 깊은 무의식의 접촉이 발생하는 통로이다. 현행 의례로는 그런 종교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례의 생명은 자발성과 경건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의례는 지나치게 긴 경향이 있어 집중도를 떨어뜨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자발성과 주체성이 사라지고 형식화된 의례는 현대인들이 종교에서 얻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을 채워주지 못한다.

의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사찰 경영을 위한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신도 스스로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의례는 일반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또 간소화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의례는 생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상 의례를 개발해 신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의례는 자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의미체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형식을 바꾸기보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교의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적인 종교 상황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불교적 가치와 정신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계종 교수사리 명법 스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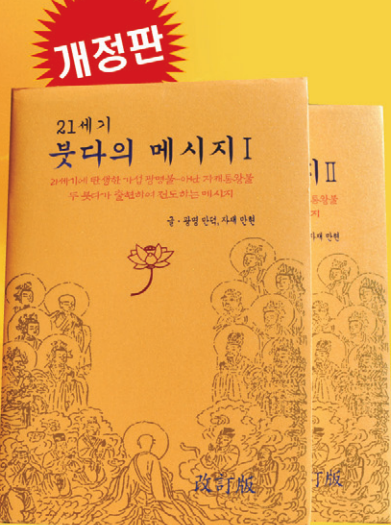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